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2024년 1월 28일 / 제622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이주일 제2독서 유인숙 / 입당 452 봉헌 213, 511 성체 151, 173 파견 61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Rolly Bantugan 2nd Reader Kane Lee

입당송 | 시편 106(105),47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제1독서 | 신명 18,15-20

화답송 | 시편 95(94),1-2,6-7,12,17-19(◎ 7과 8)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1코린 7,32-35

복음환호송 | 마태 4,16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음 | 마르 1,21-28

영성체송 |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1월 28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02월 04일	주일학교 NO	합동 미사
02월 11일	주일학교 YES	Fr. Theo
02월 18일	주일학교 NO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것과 들을 소리

새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새벽 수도원 종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을 꽤나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녹장을 부린다면 아침 기도 시간에 늦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굴의 물기를 닦을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스로 지각은 면했으나 혈떡이는 숨소리가 다른 형제들의 잠심을 깨뜨리고, 누르지 못한 머리의 까치집은 기도 시간 내내 저의 분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소리에 담긴 부르심에 귀를 닫아버린 결과입니다. 귀는 언제나 열려 있기에 구조적으로 소리를 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듣는 소리와 흘러버리는 소리가 공존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영혼에는 모름지기 각자의 귀마개를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인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신명 6,4)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지녀야 할 ‘들음’에 대한 연속된 가르침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들어야 함을 알면서도 듣지 않는 행실의 반복이 있고,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신명 18,16)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청원에는 반대로,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는 여정에서 체득한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뢰의 회복이 담겨있습니다.

잘못 꿰어진 단추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며 바로잡는 과정은 시작점에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역사를 이루고 있는 단순한 가르침이 발견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신명 18,15) 따라서 오늘 만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하게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느님의 말씀 뒤로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과오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았던가요?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구사하며 예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으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마르 1,24)라며 하느님과 철저한 분리 노선을 취하고 있는 작태를 통해 자신이 ‘들음’의 관점에서 완전하게 어긋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대등하게 엮고 있는 ‘주님의 일이 아닌 세상일을 걱정하는 것’과 ‘마음의 갈라짐’(1코린 7,33-34 참조)이 극치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들음은 따름으로 이어지지만 듣지 않음은 관계의 단절은 물론 존재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사람이 하느님께서 주신 생을 다하는 순간 가장 마지막까지 기능하는 감각은 청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하느님께 받은 선물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생 어떠한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1사무 3,9)

류지인야고보 신부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제충조절, 통증조절, 제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전례와 미사의 영성¹ - 전례의 목적

“신부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예전에 다른 신부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신부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전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맞냐, 틀리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바른 순서와 바른 자세에 따라서 바른 전례 예식이 거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큼 우리의 일치와 정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치 전례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두는 전례의 목적에 따른 감사와 찬미 그리고 청원의 표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에 대해 전례 현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마치 샘에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고,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전례 현장 10항)

여기서 우리는 전례가 지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통해 성화됩니다(전례의 하강적 측면).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에 대

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전례의 상승적 측면). 모든 전례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무언가 맞냐 틀리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 하느님 은총으로 성화되는 순간인지, 그리고 참된 하느님 찬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먼저 살아갈 수 있을 때 전례 때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몸짓과 기도들이 진정 주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 같을 것입니다.

글/ 김혜종 요한세례자 신부 로마 성 안셀모 대학교 전례학 박사, 현 춘천교구 전례 자문 위원, 포천 본당 주임, 수원가톨릭대학교 출강,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위원

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교회 내 다양성의 선물

For The Gift Of Diversity In The Church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의 선물을 깨닫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전통과 예법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the Holy Spirit helps us recognize the gift of different charisms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o discover the richness of different ritual traditions in the heart of the Catholic Church.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